

가업(家業)처럼 잇게 된 중재위원



1959년 필자의 돌 사진



1962년 집 마당에서 아버님과 필자, 동생과 외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1985년 아버님 제주대학교 총장 취임식때 찍은 가족사진
뒷줄 맨 왼쪽이 필자이고 옆으로 두 동생

아버님이 제주대학교 법과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중재위원으로 위촉되셨던 1983년, 나는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복학한 대학 4학년생이었다. 아버님은 속은 따뜻하시지만 겉으로는 유난히 무뚝뚝하시고 여간해서는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분이셨는데, 중재위원으로 위촉되시던 그날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기쁜 표정으로 식구들에게 위촉 소식을 알리셨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위원회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고, 더욱이 제주도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위촉한 직책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재위원 위촉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하다.

그 후 30여 년이 흘러 필자가 중재위원으로 위촉된 날, 나는 아버님처럼 기뻐하기도 하였지만 혼자서 오랫동안 묘한 감정에 빠졌다. 작고하신 아버지와 똑같은 직책을 운명(?)처럼 맡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지만, 집안의 장남으로서 마치 중요한 가업(家業)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건대, 필자는 유년 시절부터 아버님께 유난히 반항적이었다. 암암리에 법적인 사고방식으로 훈계하시는 아버님께 “저는 아버님의 제자가 아니고 아들입니다”라고 하면서 항상 대들었고, 법대나 상대를 가길 원하셨던 아버님의 뜻을 거역하여 인문학 쪽을 선택하였고, 은근히 중매결혼을 원하셨던 아버님의 뜻을 거슬러 연애결혼을 관철시키는 등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아버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렸기 때문이다.

사실, 법학을 공부하신 아버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언어학을 전공한 필자가 중재위원을 맡게 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학에 진학하여 집을 떠나 서울로 올 때부터 필자는 “드디어 아버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절없는 해방감(?)을 만끽하면서 아버님의 삶과 필자의 삶은 전혀 다른 길로만 갈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런 과거가 있었기에, 아버님이 작고하시고 중재위원에 위촉되던 그날, 필자는 “아니, 내가 중재위원을 맡게 되다니?”라는 놀라운 감정과 함께 아버님과의 끊을 수 없는 부자의 끈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뜻하는 교량(橋梁) 마크 ‘ㄸ’이 필자와 필자의 아버님 사이에 놓이게 되었다는 기분이라까. 아무튼 그래서 중재심리에 참석할 때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아버님과 생전에 나누지 못했던 교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제 30주년을 거뜬히 넘어선 언론중재위원회, 그간 많은 위원회들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다른 위원회와 통합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언론중재위원회가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국가에 공헌하는 바가 컸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5월 어버이날에도 아버님 묘지를 찾아 이 글을 올리겠지만, 언젠가 저세상에서 아버님을 뵈었을 때에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화두로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더욱더 성실히 중재위원직을 수행하리라 다짐해 본다.



김재원 위원
제주중재부
제주대 통역대학원 교수